

법보계장자로부터 보살의 한량없는 복덕보배광 해탈문(無量福德寶藏解脫門)의 법문을 들은 선재동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구제하는 도(道)를 생각하면서 다음의 선지식인 보안(普眼)장자를 찾아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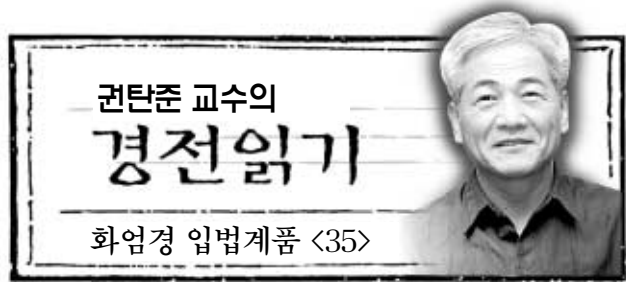
남쪽의 등근(騰根)이라는 나라의 보문성(普門城)에 이르러서 그를 발견하고 예배 드린 후에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서 보안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모든 중생의 풍병·황달병·해소·열병·귀신들린 병 등의 여러가지 병을 알아서 모두 치료할 수 있다. 사방의 중생들이 병이 있어서 나에게 오면, 모두 다 치료하여 낫게 해준다. 또 향방으로 몸을 씻기고 향과 꽃과 영락과 좋은 의복으로 잘 꾸며주고 음식과 재물을 보시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해준다.

그런 뒤에 그들에게 각각 알맞게 법을 말하는데, 탐욕이 많은 이는 부정관(不淨觀)을, 미워하고 성내는 이는 자비관(慈悲觀)을,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갖가지 법의 묘양을 잘 분별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이 세가지가 잘 다스려진 이에게는 훌륭한 지혜의 법문을 설한다. 즉 그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하려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며,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무량한 윤회의 고통을 나타내며, 공덕을 늘게 하려고 한량없는 복과 지혜를 모으는 것을 찬탄하며, 큰 서원을 세우게 하려고 모든 중생을 조복시키는 것을 찬탄하며, 보현의 행을 닦게 하려고 보살들이 모든 세계에서 온갖 길 동안에 여러가지 행을 닦는 것을 말한다.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35>

보안장자의 법문

佛身을 보고 환희케 하는 법 설해

부처님 모습, 지혜로움의 구체적 표현

갖추게 하려고 단나바라밀다를 칭찬하며, 부처님의 깨끗한 몸을 얻어 온갖 곳에 이르게 하려고 시라바라밀다를 칭찬하며, 부처님의 청정하고 부사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참는 바라밀다를 칭찬하며, 여래의 이길 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정진바라밀다를 칭찬하며, 청정하고 갈을 이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선정바라밀다를 칭찬하며, 여래의 청정한 법의 몸을 드러내려고 반야바라밀다를 칭찬한다.

그들로 하여금 세존의 깨끗한 육신을 나타내게 하려고 방광바라밀다를 칭찬하며, 중생들을 위하여 모든 고행에 머물게 하려고 서원바라밀다를 칭찬하며,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모든 부처님 세계에 지나가게 하려고 힘(力)바라밀다를 칭찬하며, 청정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기쁘게 하려고 지혜바라밀다를 칭찬하며,

끝까지 깨끗하고 묘한 몸을 얻게 하려고 모든 착하지 않은 법을 아주 떠날 것을 칭찬하니, 이렇게 보시하여서 각각 돌아가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또 여러가지 향을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여러가지 향을 만들 수가 있다. 나는 이 향으로 공양하여 여러 부처님을 희유하고 모든 중생을 구호하는 소원·모든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는 소원·모든 여래계 공양하는 소원을 가득히 내게 된다.

선남자여, 이 향을 사들 때에 날날 향에서 한량없는 향기가 나와 사방 모든 법계에 모든 부처님 도랑에 풍기니 아름다운 여러가지 모습으로 곳곳에 가득히 장엄하게 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을 두루보고 환희케 하는 법문'만을 알 뿐이다.”

이상에서 보안장자는 설한 법문은 모든 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혜로써 모든 부처의 지혜 방편을 개발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 지혜에 들어가 환희케 하는 법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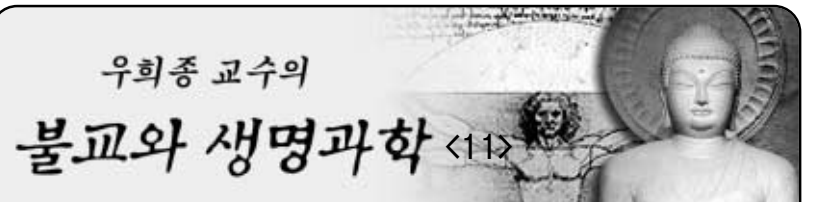
선재동자가 보살도를 물었는데, 보안장자는 먼저 중생들의 여러가지 병을 치료해주는 것을 말하고, 의복·음식·재물을 보시하여 모자람이 없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보안장자는 번뇌와 같은 중생의 마음의 병을 지혜로써 비추어 보아 각각 알맞은 수행법을 제시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잘 다스리고 있는 이에게는 훌륭한 지혜의 법문을 설해서 여러가지 공덕의 행을 닦는 법을 설한다.

특히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갖추어 부처님의 몸(佛身)을 얻기 위해서 열 가지 바라밀이 닦아야 한다는 것이 설해져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열 가지 바라밀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부처님의 모습이나 부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로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낸 여러가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가지 향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그 향을 태워 일심(一心)으로 지극한 원을 일으켜 부처님 세계를 깨끗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여러가지 향이 일체세계로 널리 퍼져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향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도 지혜로써 가르침의 향을 잘 설함으로써 그 것에 감화를 받아 나쁜 일을 버리고 지혜의 향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김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1>

두뇌 작용과 수행 경계

요즘 전통적인 간화선이나 기도, 염불을 비롯하여 위빠사나, 초월명상, 아파타, 기(氣)훈련 등 다 열거하기에도 비추어 보아 각각 알맞은 수행법이 수립되고 만들어져 서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하면서 종종 강조되는 것이 무슨 빛을 느낀다거나 유체이탈을 한 경험이며, 마치 이러한 것이 도력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다. 심지어 참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수행정도를 나타낼 목적으로 예를 들거나 혹은 그런 체험이 없다면 수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하는 스님도 계속 정도이니, 얼마나 우리가 신봉하거나 신비로운 것을 찾는 마음이 깊은지 보여 주고 있다.

내가 하나로 느껴지는 물아일여의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임상적으로 죽음을 선고 받았다가 되살아난 35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네덜란드에서의 연구는 (Lancet, 2001년 12월) 이들 중 12%의 환자로부터 몸에서 의식이 빠져나가거나 긴 터널을 거쳐 빛을 보고 혹은 죽은 친척과 만난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해석으로는 평소 의부로부터 신호를 받아 해석하던 우리 두뇌가 죽음에 이르러 산소 결핍 등의 원인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두뇌의 내부 신호를 평소 해오던 것처럼 외부 신호로 받아들여 해석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크스님들께서 마음공부에서 항상

영적느낌, 뇌 최면적인 부분 있어

체험보다 현재의 마음자리가 중요

한편 신기한 체험은 현대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대부분 두뇌 작용에 불과함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블랑크 박사는 간질환자의 증상을 연구하던 중 측두엽 오른쪽쪽 주름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면 유체이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였고(「Nature」, 2002년 9월호), 자극의 강도에 따라 몸에서 점차 의식이 가깝게 떠오르는 것에서부터 천장에 가까워지는 경험까지도 보고 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명상에 든 스님이나 천주교 수녀님의 기도 중에는 물리적 공간 내에 신체 존재감을 알게 하는 두 정엽 위쪽 뒷부분의 활동이 지극히 낮아짐이 알려져 있다. 이 부위는 생물체에 있어서 자기(自己)와 타인(他人)을 구분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이 부위의 활동이 낮아진다면 우주와

조심하라고 이른 것이 이러한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초자연적 체험이다. 빛이 보이고, 답답이 없어져 활기차 보이거나 사물이 방광(放光)하는 등 여러 이야기가 있다. 물론 이러한 체험을 겪을 정도로 열심히 집중하여 수행한 것일 수도 있기에 그만큼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행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마음자리를 보기 위해 가는 수단임을 명심한다면 굳이 그러한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밥 먹고 잠자고 공안에 신체 존재감을 알게 하는 두 정엽 위쪽 뒷부분의 활동이 지극히 낮아짐이 알려져 있다. 이 부위는 생물체에 있어서 자기(自己)와 타인(他人)을 구분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이 부위의 활동이 낮아진다면 우주와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선의 세계 ⑧

직지인심-7

아무래도 좀 심하지 않으나 할 수도 있다. 여래장이나 불성이니 해도, 역시 처음에는 중생이었다가 나중에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어찌 감히 중생이 그대로 이미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생과 부처 사

는 데 꼭 떨어져 헤어나올 생각을 앓는 이들에게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한 부처님의 경지를 이야기해준다. 한편 부처의 경지를 신비화한다거나 성불은 너무 어렵고 요원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중생이 워낙 여래장이다. 당신도 이미

중생, 부처사이 연속성 있음 강조

이의 관계를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느냐 하는 점이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에 초점을 두면서 갈라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중생이 워낙 부처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중생과 부처가 근본적으로 같다는 점을 강조하는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중생으로 살아가

부처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어리석음만 떨쳐버리면 된다고 격려한다.

어쨌든, 여래장사상, 불성사상에서 말하는 성불은 중생이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여래장이나 불성이니 하는 것 자체가, 중생이 원래 부처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완전히 발현하게 되는 것이 성불이지 전에 없던 어떤 자질이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미 중생과 부처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선종에서 중생이 그대로 이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여래장사상, 불성사상이 말하는 중생과 부처 사이의 연속성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방편설일 뿐인가? 어차피 모든 언설이 방편이라고 보기도 하니 그렇게 말해도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선종의 그 이야기에는 단순히 중생 교화를 위한 기술적인 편의 이상의 의미가 깔려있다. 어리석음의 정제에 관한 견해가 거기에 전제로 깔려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리석음, 즉 무명번뇌는 워낙 그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중생과 부처를 가르는 장벽이 무명번뇌가 원래 없으니 중생과 부처는 같다는 논리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다음 회의 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운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 조상신과 중령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홀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우고 세우듯 걸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릇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청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 지상의 그 어떤 익한 중령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병의령)
* 무명,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놀리고 환정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기워늘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력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명리학사상 가장 확실한 교과서인 "최신파자명리학비결" 소개

사주학은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교재와 선생을 만나기가 어려울뿐입니다. 본서로 공부하면, 여러분도 빠른 시일 내에 사주학의 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서는 사주학의 근본원리로부터 고급 추명비결에 이르기까지 사주학의 핵심 이론들을 확실하게 밝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 본서의 주요내용 소개 :
- 애매한 사주의 운신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비결 수록
- 사주구조의 좋고나쁨을 판별할 수 있는 비결 수록
- 육친분석 및 대·세운 분석 특변술 수록
-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각종 중요 비결들 수록



저자 : 오산 정대균
책규격 : A-4용지 620쪽
가격 : 220,000원
(단, 스님, 법사님들에게는 우대가격 적용)
본서는 본 연구소에서만 판매함.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송금하신후 전화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자세한 서적소개에 관해서는 하기 홈페이지 참조.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은행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전화 : 02-831-0055(대표)
FAX 02-831-0058 H·P 011-208-0051

능인선원에서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스님들 모집합니다”

-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영사, 등용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님을 모집합니다. 큰 뜻을 머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님들을 모셔서 세시대를 열어가게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머금은 행자님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소정의 수행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원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대학원등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포교를 원하시거나 외국진출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이미 스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 포교를 원하시거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모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의의 능력과 원력에 따라서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 ▶ 『행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스님』
-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코자 하시는 분
- 승적증명서 입법원서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승복 범복 안내

-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바지 : 180,000
동방·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료 (폴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50,000
동방·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 징 - 세탁시 폴 안해도 됨
적삼·바지 : 130,000
동방·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 징 - 가법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를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바지(모직화복)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걸림·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개미골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6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